

남성의원 여성문제 국감발언 “무지 넘어선 망언” 여성계 발끈

진상조사위 구성등 강력대응키로 91.9.26

여성계가 지난 19일 정부2장관실·여성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위 남성 의원들의 여성관련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오)는 24일 낮 12시 여협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19일 국감장에서 나온 남성 의원들의 발언은 여성문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넘어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홍연숙(한국전문직여성클럽 회장) 이사 등 7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 뒤 이번주중으로 국회의장, 국회 운영위원회, 민자·민주당 총재 앞으로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19일 국감에서 국회 행정위 소속 14명의 의원 가운데 진지하게 감사활동을 편 1~2명을 빼고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방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의 본능을 살리는 방안 연구 등을 주요 여성정책으로 삼으라”(김중위·민자, <한겨레신문>20일자 2면) “정부2장관실에서 여성 고용을 늘리라고 기업쪽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능력이 남성 못지않다

는 과학적인 증거를 대라. 사용자쪽에선 여성의 의식이 높아져 풀치 아프다고 아우성이다”(박실·민주) 등의 망언을 했다. 또한 “정부2장관이 몸을 던지는 각오로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라”는 양성우 의원(민주)의 격려성 발언에 대해 일부 여당의원들이 “그래 몸을 던져야지” 등의 농담과 야유성 발언도 잇따랐다.